

2008년 기술벤처 중흥의 신기원을 기원하며...

글 정회훈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센터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창업'이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체제로 양산된 많은 실직자들과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구직자들이 찾아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자본 창업이었다. 이때 최고의 인기 아이템은 조개구이 전문점, 짬뽕, 불닭, 막걸리집 같이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계형 소점포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계형 창업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그라들곤 했다.

오래 가는 창업은 따로 있었다.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벤처특별법이 제정된 1997년 8월 이후 휴직 및 겸직중인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 실패는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과는 결과가 사뭇 달랐다.

지난 10년간 교수 및 연구원 1,003명이 창업을 하였고 이중 16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기관에 총 43억 원을 기부하였으며 창업성공률도 72.7%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8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출신의 기술 인력들이 연평균 96명씩 창업을 했는데, 274개 기업이 폐업을 하여 현재 729개(72.9%)의 기업이 운영중이라는 것.

이는 일반기업의 5년 이내 생존율이 5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기술력을 가진 창업이 바로 장수의 비결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연구원 창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지난 97년 벤처특별법 제정으로 휴·겸직 창업제도, 실험실공장, 스톡옵션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임과 동시에 창업지원을 위한 캐피탈회사와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도 기인한다.

내년 성장률 5%로 전망, 기술 창업으로 승부하자!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5월의 예상치는 4.4%였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서비스생산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됐던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경기회복은 실질구매력(GNI)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경기 전망과 함께 '벤처특별법'이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기술창업'의 기회는 더욱 늘어났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2007 대한민국창업대전>을 통해 기술을 무기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노력이 눈부심을 알 수 있었다.

자금 문제에도 정부의 지원이 늘어났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R&D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특별 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보증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단계에서 창업 초기 운영자금에 애로를 겪는 기술 벤처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신벤처중흥의 빛을 밝히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무리 창업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기술창업기업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은 벤처성공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보다 많은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부한 차세대 기술벤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2008년에는 기술창업을 위해 창업보육 센터의 문을 두드리보는 건 어떨까. 전국에 있는 270여개 창업보육센터가 기술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병역할을 수행할 것이다.